

세계 경제 둔화 여부 '예의주시'

기재부, 최근 경제 동향 배경 설명회 가져 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3.7~3.5% 낮춰

정부가 세계 경제 둔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 배경 설명회'를 열고 "위험요인 중 하나로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관련 우려를 추가했다. 관련 우려가 커지는 부분들을 앞으로 꼼꼼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0.2%포인트(p) 낮췄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0일(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 경제

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우리의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느리다"면서 각국 정부에 경제 둔화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14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아세안(ASEAN)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라고 일련 바 있다. KIEP가 제시한 국가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3%, 중국 6.2%, 일본 0.8%, EU 1.8%, 아세안 5.2%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 등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 폭이 줄었다. 중국 역시 생산·소비·수출 모두 부진해 같은 기간 성장률(6.4%)이 둔화됐

고 일본 또한 4분기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홍 과장은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면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구조 특성상 세계 경제 둔화 우려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그린북에서 위험요인으로 짚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과 연결돼 걱정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관련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하반기부터 나아진다는 전망이 실제로 이어질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8년 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 역시 전년 대비 0.8%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1.3%), 의복 등 준내구재(1.8%),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2%)의 상승 덕분에다.

이와 관련해 홍 과장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현대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팔리세이드가 인기를 끄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 흐름이 양호해졌다"면서 "대외여건에 문제가 없다면 소비는 앞으로도 양호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월 건설투자는 2.4% 늘었고 설비 투자는 0.4% 줄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전월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올 1월 수출은 전년보다 5.8% 줄어 들었다.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는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은 감소했다.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0.15%)했다. 전셋값 역시 0.22% 낮아졌다.

/뉴시스

전북 농축협, 상호금융대상 최우수상 등 수상 '꽤'

도내 92개 농·축협 중 12곳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이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2018년 상호금융대상(大像) 시상식에 도내 92개 농·축협 중 12곳이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5일 밝혔다.

2018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북전주농협(조합장 유한기),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은 대그룹 1위(최우수상)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소그룹별 각 1위에 주어지는 우수상엔 용진농협(조합장 정안철), 망성농협(조합장 이동호)이 수상, 2·3위에 주어지는 장려상에 구이농협(조합장 안광옥), 화산농협(조합장 김

중재),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 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 이서농협(조합장 오효택),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이 수상했다.

특히, 상호금융대상(大像)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농·축협을 대그룹 14개, 소그룹 38개 그룹별로 나눠 농·축협의 경영 상태와 수익성강화, 여신건전성, 고객관리, 소비자보호, 리스크관리와 사고예방 등 신용사업의 전반을 종합평가하여 주어지는 상으로 시상금과 특진, 회장 표창이 수여되는 신용사업 최고의 상이다. 전북농협의 상호금융대상 수상 사무소의 증가는 전북농협과 농·축협이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상생금융과 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프로모션을 하며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그동안 전북농협은 농·축협의 경영 컨설팅과 우수 직원 양성과정을 꾸준히 전개하여 건전경영달성, 수익구조 개선, 자산건전성 제고로 지속적인 사업성과와 선진 상호금융 사업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큰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전북농협은 전국상호금융업적평가에서 2016년 최초로 상호금융 전국 1위를 달성, 2017년~2018년 2위를 달성하여 전국최고의 상호금융



김우철

을 이끌어가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어려운 금융환경에서 상호금융대상 수상 증가로 전북농협 상호금융을 전국 최고로 이끌어준 농·축협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금융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호남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창업기업 성과 창출 기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호남권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한해동안 △매출 22억6,900만원 △수출 9,500만원 △고용 56명 △투자 1,000만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해 역량 있는 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 전주기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국 8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남권 주관기관인 전북경

진원은 2017년(1차년도) 23개 기업, 2018년(2차년도) 22개 기업(후속지원 2개 기업 포함)을 선정하여 소비자반응조사 43회, 교육 259회, 멘토링 147회, 해외시장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특히,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한 투자유치 프로그램으로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 전문투자자와 12개 창업기업을 매칭하여 투자멘토링과 IP데모데이 등 투자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투자역량교육을 한 결과 지원기업에게 310백만원의 외부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한, 수혜기업 중 LED를 활용한 안전예방 비상경보장치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에스와이테크(전주시 소재)는 매출 7,700만원, 신규고용 6명, 특허출원 1건, 생활혁신창업지원사업과 MG산업생태계기술지원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 제품으로 일부 등산로와 학교에 기증하여 시범운영하며 비상벨기능 강화와 범죄도출 지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 단계에 있다.

전북경진원은 금년에도 '세대융합창업캠퍼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창

업기업 위기관리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스타기업 배출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의 숙련기술자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 장년층과 청년층간의 융합형 기술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권 '2019 세대융합창업캠퍼스(예비)창업팀'은 3월말~4월초에 지원, 규모는 20개팀 내외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sa.kr>)를 통해 모집한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역밀착형 금융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 상반기 00명 규모의 신규직원 채용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금융전문가 양성한다

전북농협, 신규직원 열린 채용으로 취업기회 확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역밀착형 금융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 상반기 00명 규모의 신규직원 채용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상반기 공개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이달 20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은 일반, IT분야로 나누게

되며 일반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하여 선발한다. 단, IT분야의 경우 지역제한은 없다.

특히, 보훈대상자,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농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하림 육계사육 농가 평균 조수익 2억원 돌파

(주)하림은 육계사육 농가의 평균 조수익(농가총수익)이 2억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하림에 따르면 육계농장 208호(3회 전 이상 농가 기준)를 대상으로 평균 조수익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2억3000만원으로 2017년 1억9100만원에 비해 1200만원 증가했다.

하림은 농가 조수익 2억원 돌파를 위해 무장계사 신축 지원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생산량을 높여 왔다.

평균 사육규모도 지난 2017년 6만 7000마리에서 2018년 7만2000마리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1995년 초기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 2만7000마리에 비해 2.6배 정도 성장했다.

하림은 미국 평균 규모인 10만마리

까지 확대해 농가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 상대평가 방식을 통한 사육규모(FCR:1.5보정)를 낮춰 사육비용 최소화를 통한 농가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하림 육계사육 농장들은 지난 2013년 1억5100만원이던 평균 조수익을 이듬해 1억6200만원으로 증가시켰으며 매년 1000만원 이상 수익 규모를 향상시키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안정적인 계열화 사업으로 사육두수 및 사육횟수 증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농가당 평균 조수익이 2억원을 돌파하는 새로운 기록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